

발 간 사

서울이 처음으로 도읍이 된 지는 2천년이 넘었고 한반도의 수도로 정해진 지도 올해로 600년이 됩니다. 서울에는 남한 인구의 1/4이상이 살고 있지만 서울을 단지 서울사람이 사는 공간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한민족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활동의 중심지이며 5천년 역사를 가진 한국 발전의 산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자체의 현주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역사적, 문화적 뿌리를 잃은 실형민 집단만이 우왕좌왕하는 삭막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혹독한 비판에도 별다른 변명을 찾을 길이 없는 “국적없는 거대도시”로 변한지 오래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학연구소는 역사도시,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진면목을 재발견 혹은 개발하여 서울 시민들의 뿌리를 찾아주고 고향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6월에 서울특별시의 후원하에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연구소로 개설되었습니다. 서울학연구소는 “역사도시, 문화도시 서울의 소중한 가치들을 재발견해 내고 이를 학문적으로 정립”한다는 취지하에 크게 서울학 사료탐사, 서울학연구, 서울시민문화대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울학연구 사업에서는 서울학을 학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학 연구지원, 서울학 총서발간, 서울학 심포지움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판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연구소가 발간한 혹은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 출판물의 종류는

그 목적이나 대상 독자층에 따라서 서울학 연구총서, 서울학 교양총서, 서울학 연구저널, 서울학 사료총서, 서울학 이미지총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서울학 연구총서는 서울학 관련학자나 연구자들의 '서울학연구'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계획 연구의 진흥을 위한 전문학술지입니다. 이번에 출판되는 "서울의 경관변화"는 서울학연구총서 1(서울학연구서설)에 이은 그 두번째 것입니다.

이번의 "서울의 경관변화"는 역사지리분야의 권위자이신 이해은 교수님의 네분의 교수님들이 공동집필하신 것으로서, 임덕순 교수님의 "조선초기의 한양정도와 수도의 상징화", 김연옥 교수님의 "조선시대 서울의 자연환경", 이은숙 교수님의 "조선시대 서울의 교통", 양보경 선생님의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 및 행정구역", 이해은 교수님의 "조선시대 이후 서울의 토지이용과 경관변화"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교통의 변천, 인구 및 행정구역의 변화 등 조선시대 이후 서울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서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훌륭한 연구성과를 제출해 주신 이해은 교수님의 네분의 교수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원고의 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최근희 박사와 김영모 연구원 그리고 김훈희 군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의 말을 전합니다.

1994년 12월
서울학연구소장 안 두 순